

Global Trade Report

2021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 2021 세계 교역 전망 / 2

II . 2021 한국 수출 전망 / 3

III .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

6	1. 북미
10	2. 중국
13	3. EU
16	4. 일본
19	5. ASEAN·대양주
24	6. 인도
27	7. 중동
30	8. 중남미
33	9. CIS
36	10. 아프리카

요 약

□ (총괄) '21년 우리 수출은 5,400~5,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우리나라 수출은 세계 교역환경 개선, 주력품목 단가회복(반도체·유가), 신성장품목 수출호조 지속, RCEP 등 FTA발효 기대, 온라인 수출확대 등으로 약 6~7% 달성 전망

< 우리나라 수출 추이 (억 달러, %) >

2019년		2020년		2021년(e)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5,422	△10.4	5,100 내외	△6.0 내외	5,400~5,500	6~7

자료: 관세청, KOTRA 해외무역관 (바이어, 주재상사 등 468개 정보원 의견 종합)

□ (지역별) 쏠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예상되나, 對日 수출회복은 다소 늦어질 전망

-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회복, 대규모 경기부양책(중국·미국·인도·아세안 등)과 친환경정책 추진(유럽·미국) 등으로 전반적인 수입 수요 확대 예상
- 對日 수출은 일본 경기침체 장기화·소비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 상존

< 2021년 지역별 수출 전망 (%) >

북미	중국	EU	일본	ASEAN	대양주	인도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8.0	7.2	8.6	0.7	8.8	7.4	10.1	1.6	6.9	5.0	7.5

주: 기타지역(대만, 노르웨이, 마셜제도 등) 제외

□ (품목별) 주력·신성장·비대면 관련 품목이 수출 견인 예상

- (주력품목) 반도체 슈퍼사이클(수요회복, 단가상승, 5G확대, DX가속화 등)이 예상되며, 석유제품은 유가 상승에 힘입어 수출 확대 전망
- (신성장 품목) 주요국의 친환경정책 시행(전기차·이차전지)과 의료·보건 인프라 구축 추진(바이오헬스)으로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
- (비대면 제품) 언택트 경제 확산이 지속되며 IT제품(반도체·무선통신 등)과 홈코노미 제품(가공식품·컴퓨터 등) 수요 지속 전망

2021 세계 교역 전망

- '21년 세계교역은 4~8%대의 성장세를 보이며 부진에서 점차 벗어날 전망
 - (호조요인) 국가별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따른 글로벌 경제·수요 회복, 디지털 무역의 확산과 더불어 '20년 무역 기저효과로 무역 회복세 전망
 - 재난지원금 지급,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른 선진국 중심의 빠른 수입수요 회복세는 세계교역 회복의 모멘텀으로 작용 예상
 - (불안요인)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美 대내외 정책변화, 보호무역 주의 확산, 백신보급 지연 따른 인적교류 제약 등 불확실성 존재
 - '21년 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기관별 무역증가율 전망 >

연도	IMF	WTO	OECD	World Bank
'20년	△10.4%	△9.2%	△10.3%	△13.4%
'21년	8.3%	7.2%	3.9%	5.3%

*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 (권역별) 북미·유럽 등 선진지역의 수출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아시아·중남미·중동·CIS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예상(WTO)
 - * 수출증가율 전망치 : (북미)10.7%, (EU)8.2%, (아시아)5.7%, (중남미)5.4%, (기타)6.1%
 - * 수입증가율 전망치 : (북미)6.7%, (EU)8.7%, (아시아)6.2%, (중남미)6.5%, (기타)5.6%

< (참고) 한국경제 현황 및 전망 >

- OECD는 '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회원국 중 1위, G20 중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년 한국은 효과적인 방역조치와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으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했고,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
 - 특히 K-방역, 新성장수출품목의 약진, 주력수출품목 회복세 등 수출이 경제회복세 견인
- 한편 '21년 한국의 성장률은 3% 내외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기관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

연도	OECD	IMF	무디스	S&P	한국은행	현대경제
'20년	△1.1%	△1.9%	△0.8%	△0.9%	△1.1%	△0.8%
'21년	2.8%	2.9%	3.2%	3.6%	3.0%	3.0%

* 자료원 : 각 기관 홈페이지

II

2021 한국 수출 전망

- (총괄) '21년 우리 수출은 5,400~5,500억 달러에 달할 전망(6~7% ↑)
- (호조요인) 세계 교역환경 개선, 주력품목 단가회복(반도체·유가), 신성장 품목 수출호조 지속, RCEP 등 FTA발효 기대, 온라인 수출확대 등
 - * WTO 글로벌 상품 교역량 전망 : ('20) △9.2% → ('21) 7.2%
 - (불안요인)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 新보호무역주의 확산, 바이든 행정부의 新통상정책 방향 등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 우려

< 우리나라 수출 추이 및 전망 >

(단위 : 억 달러, %)

'18년		'19년		'20년 ^o		'21년 ^f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6,049	5.4	5,422	△10.4	5,100 내외	△6.0 내외	5,400~5,500	6~7

※ 국내외 기관은 '21년 한국 수출 증감률을 4~8%대로 전망

* (OECD) 4.0%, (국회예산정책처) 4.8%, (정부) 8.6%, (LG研) 5.3%, (KDI) 7.1%, (무역협회) 6.0%

- (권역별) 쏠지역으로의 수출 확대 예상되나, 對日 수출회복은 다소 늦어질 전망
-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기회복, 대규모 경기부양책(중국·미국·인도·아세안 등)과 친환경정책 추진(유럽·미국) 등으로 전반적인 수입 수요 확대 예상
 - * '21 주요국 수입증가율 전망치(OECD, %) : (中) 2.1, (美) 6.5, (獨) 3.0, (인도) 12.0
 - 對日 수출은 일본 경기침체 장기화·소비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 상존
 - * EIU “일본 GDP는 '26년에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가능할 것” ('20.6.16)

< 2021년 지역별 수출전망 >

	권역	전망	호조요인
선진국	북미	8.0%	▪ 건설 프로젝트 재개, 신재생에너지·인프라 분야 투자 활성화
	중국	7.2%	▪ 대외개방 확대(쌍순환전략), SOC(5G, 고속철 등) 투자 확대
	유럽	8.6%	▪ 친환경 산업 확대, 범유럽 5G 구축, 보건분야 예산확대
	일본	0.7%	▪ 기업의 DX화 및 비제조업 투자 확대로 IT·원격서비스 등 수요 확대
	아세안	8.8%	▪ RCEP 발효기대, 국가봉쇄 해제,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신흥국	인도	10.1%	▪ 대규모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시행, 5G 시범운영(중국산 제한)
	중남미	6.9%	▪ 봉쇄조치 완화, 시장개방(한-중미 5개국 FTA 발효 예정)
	중동	1.6%	▪ 유가 회복, 對이란 경제제재 완화, 정부주도 인프라 투자 본격화
	CIS	5.0%	▪ 러, 북극해 개발 프로젝트 추진 및 경기부양책 시행(기업지원 등에 \$400억)
	아프리카	7.5%	▪ 범국가적 인프라·에너지 프로젝트 추진, AfCFTA 본격 시행

□ (품목별) 주력·신성장·비대면 관련 품목이 수출 견인 예상

- (주력품목) 반도체 슈퍼사이클(수요회복, 단가상승, 5G확대, DX가속화 등)이 예상되며, 석유제품은 유가 상승에 힘입어 수출 확대 전망
 - * 반도체(IDC 전망) : (수요) DRAM 19.1%, NAND 34.2%, (단가) '21.2Q부터 상승
 - * 유가(EIA 전망, Brent, \$/b) : ('20년) 41.6 → ('21년) 49.5
- (신성장 품목) 주요국의 친환경정책* 지속 시행(전기차·이차전지)과 의료·보건 인프라 구축** 추진(바이오헬스)으로 수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
 - * (유럽)전기·수소차 충전소 100만개 설치, (獨)전기차 구매보조금 확대, (태국)전기차 허브 목표설정
 - ** (러시아)보건지출확대(\$6.7억), (동유럽)병원현대화 프로젝트 추진, (중동)의료보건 체계 개선
- (비대면 제품) 언택트 경제 확산이 지속되며 IT제품(반도체·무선 통신 등)과 홈코노미 제품(가공식품·컴퓨터 등) 수요 지속 전망

<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품목	전망	수출 증감 요인
주력 품목	일반기계	☀️	▪ 제조업 육성 정책,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로 건설장비 수요 확대
	반도체	☀️	▪ 유망산업(5G·PC) 확대로 서버용·산업용 반도체 중심 신규 수입수요 증가
	자동차	☀️	▪ 전세계 그린뉴딜 정책으로 친환경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입수요 증가
	석유제품	☁️☀️	▪ 산유국 간 감산 공조 체재 유지, 경기회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무선통신기기	☁️☀️	▪ 주요국 5G 통신 인프라 구축 시행, 中·美 시장 스마트폰 경쟁 심화
유망 품목	바이오헬스	☀️	▪ 주요국 의료시설·장비 분야 예산배정 확대, K-방역 성과 효과
	ICT 제품	☀️	▪ 전세계 DX 가속화, 中 디지털산업 비즈니스 협력모델 수요 증가
	가공식품	☀️	▪ 활동제한으로 가공식품 수요 증가, 한류 영향으로 김치·라면 등 국산식품 인기

주: ☀️ 대폭증가(10% 이상) ☁️☀️ 소폭증가(3~10%) ☁️ 현상유지(0~3%) ☁️☁️ 소폭감소(0~10%) ☔️ 대폭감소(10% 이상)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21년에도 전자상거래(E-commerce) 수출 호조세 지속 전망

* '20.1~10월 전자상거래 수출실적 : (금액)305.8백만 달러, 112%↑ (건수)3.3백만 건, 99%↑



< 2021년 지역별 주요 품목별 수출 전망 >

품목명 (MTI코드)	2021년 수출 전망											
	종합	북미	중국	EU	일본	아세안	대양주	인도	중동	중남미	CIS	아프리카
지역별 종합												
일반기계 (71,72,75,79)												
자동차 (741)												
자동차부품 (742)												
평판DP (8361)												
반도체 (831)												
무선통신 기기(812)												
가전 (82)												
컴퓨터 (813)												
석유류 (4)												
철강제품 (61)												
석유화학 (21)												
석유제품 (133)												
선박류 (746)												

대폭등(30%초과)
 대폭증가(10~30%)
 소폭증가(3~10%)
 현상유지(0~3%)
 소폭감소(0~-10%)
 대폭감소(-10~30%)
 대폭락(-30%미만)

* 자료: KOTRA 해외무역관(바이어, 주재상사 등 468개 정보원 의견 종합)

III

지역별 시장 여건 및 전망

 북 미	2021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8.0%	2020년	780억(15.3%)
		2021년(F)	842억(15.4%)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내수시장 개선과 신성장 산업 투자 확대로 대미 수출 증가 전망			
▶ 호조품목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선박류, 석유화학, 컴퓨터 ▶ 부진품목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가. 2021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내수시장 개선이 예상되며 완만한 경제회복 전망

○ (미국) 백신개발,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중심의 회복세 지속으로 '21년 미국 경제 3.1% 성장 전망(IMF)

* 美 경제성장률('20→'21, %): (IMF)△4.3 → 3.1, (OECD)△3.7 → 3.2

** 개인소비지출 증가율 전망(%): (21.1Q)2.9 → (2Q)△4.2 → (3Q)5.0 → (4Q)5.4 (EIU)

- 다만, 고용회복 지연('21년 실업률 6.7% 전망) 및 산업생산 부진은 성장 둔화 요인으로 작용 예상

* EIU “산업생산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 ('20년 △8% → '21년 5%)

○ (캐나다) 소비, 물가, 투자 등 전 분야의 경기침체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21년 캐나다 경제성장률 4.2% 전망(캐나다 중앙은행)

- 물가('21년 1.2%)·투자('21년 11.7%)·부동산·소비는 회복세로 진입하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노동시장 개선은 지연 예상('21년 실업률 7.7%)

□ (정책) 美 1차 부양책*에 이은 2차 경기부양책 시행(약 9,000억 달러 규모, 12.22일 통과)으로 경제회복, 중산층 재건, 친환경 혁신 정책 등 신속 추진

* 약 22조 규모(개인현금지원 \$2,500억, 기업대출 프로그램 \$5,000억, 실업급여 증액 \$2,600억 등)

< 美 2차 경기부양책 주요내용 >

△중소기업 지원(\$3,250억), △실업수당지급(\$1,200억), △개인지급금(\$1,660억), △교육(\$820억), △코로나검사·백신조달 등 헬스케어 분야(\$630억), △운송분야(\$450억) 등

- 캐나다는 C\$820억 규모 자금투입 이후(중소기업·개인지원 등),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 배정(C\$75억 규모) 검토 중

나. 2021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정보통신, 의료바이오, 친환경 등 미래 성장산업 확대

* 바이든 행정부, 연방조달 및 R&D 투자에 총 \$7,000억 투입해 美 연방정부 조달시장은 \$1.3조 확대 전망 → 친환경에너지·5G·AI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투자 집중 예상

○ (5G 기술 강화) 차세대 통신망 5G 이니셔티브 발표, 펀드 조성, 관련 규제 철폐를 통한 기술 혁신 및 투자 확대

* 향후 10년간 5G 무선통신망 구축에 약 \$204억 예산 투입 전망

○ (신재생에너지 확대) 바이든 행정부, 그린 뉴딜에 준하는 차세대 환경·경제 융합 정책 제시(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

* 10년간 연방 예산 \$1.7조 투입 및 총 \$5조 투자유치 계획

○ (SOC 신규투자) 미국 인프라 현대화 및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교육시설·도로·농어촌 통신망·대중교통 시스템에 투자 확대 예상

* '25년까지 최대 \$4.5조 투입 전망

○ (의료바이오)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건네트워크 기능 약화가 대두됨에 따라 의료체계 개선추진 및 원격진료 활성화 움직임 확대

□ (통상환경) 협력확대 기대되나, 보호무역주의 조치 등은 우려

○ (미국) 미국 주도의 새로운 국제질서 정립, 국제공조를 통한 對中견제

- (통상) '다자주의' 통상 환경* 전망되나, 일부 보호무역조치** 시행 전망

* WTO 개혁, TPP 재가입, 노동·환경 등 진보적 가치 중시 무역협정 추진

** 탄소국경세 도입 및 대중 301조 수입규제 유지 등

- (공급체인) '바이아메리칸 강화' 및 '공급체인 재건정책'으로 미국 중심의 GVC 재편 추진

* (리쇼어링) 첨단·미래산업 중심 리쇼어링 정책 강화, 'Made in All of America Plan' 추진

* (북미 RVC 구축) USMCA 활용 미국-캐나다-멕시코 협력에 따른 지역공급망 강화

- (미중 무역분쟁) 동맹국과의 국제공조를 통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기술패권 경쟁 지속 예상

○ (캐나다) 캐·중 외교관계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USMCA 발효로 통상환경 개선*될 전망

* USMCA로 5년간 GDP 0.249%상승 및 약 4만명 일자리 창출효과 기대(캐나다 외교부)

- (캐·중 외교관계) 화웨이 부회장(명완저우)의 미국 송환이 결정될 경우 캐나다-미국-중국 3국 간 외교관계가 악화될 전망

* 캐나다 3대 통신사 모두 5G 장비 공급사로 화웨이 배제, 캐-중 부정적 영향 가중

- (협력 다변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MERCOSUR (남미공동시장) 등을 통한 유럽·중남미·아시아 등과의 협력 다변화 기대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자동차, 반도체 (소폭증가) 일반기계, 선박류, 석유화학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741)	대폭증가 (10~30%)	○ 한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빠르게 회복중*이며, 2차 경기 부양책 시행으로 소비심리 완화되어 수입수요 증가 전망 * 북미 현대기아차 판매량: 3~8월 △46.8%, 9월 +10.7%(Marklines)
반도체 (831)	대폭증가 (10~30%)	○ 5G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시장 점유로 모바일 D램·낸드플래시 중심의 수요 증가 기대 ○ 국내기업의 비메모리 분야 투자 확대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 美, '20년 중단된 건설 프로젝트 재개, 정부주도 대량 주택공급·착공 움직임이 호재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선박류 (746)	소폭증가 (3~10%)	○ 국제해사기구 환산화물 배출규제('20.1.1), 에너지효율 설계지수규제('23년 시행예정)로 친환경선박 수요 확대
석유화학 (21)	소폭증가 (3~10%)	○ '21년 캐나다 정부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반적인 산업 회복이 전망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식품 위생포장 중요성 증대로 플라스틱 제품 수요 증가 추세

□ (현상유지) 철강, 무선통신기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 (61)	현상 유지 (0~3%)	○ 철강산업 부진*이 지속되나, 바이든 행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및 인프라 투자 확대로 시장 호조 전망 * '20.10월 美 철강생산, 총 생산량의 67.9%로 가동(美 철강협회)
무선통신기기 (812)	현상 유지 (0~3%)	○ 5G 스마트폰 구매수요가 확대될 전망('21년 1.4억 대, +4.8%)이나, 시장 경쟁 심화로 평균단가 하락 우려 상존

□ (소폭감소) 자동차부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부품 (742)	소폭감소 (0~-10%)	○ USMCA로 인한 역내 원산지 규정 강화, 미중 무역 분쟁 지속 등으로, 북미 완성차 제조업체 및 Tier1 기업의 현지 생산 자동차부품 선호도 증가

 중 국	2021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7.2%	2020년	1,384억(27.1%)																					
		2021년(F)	1,484억(27.2%)																					
<p>'14.5 계획' 첫 해로 SOC투자, 소비 진작책 추진, 대외개방이 확대되며 대중 수출 증가 전망</p>		 <table border="1"> <caption>수출액(억 달러) 및 증감률(%)</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수출액(억 달러)</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2016</td> <td>1,244</td> <td>-9.3</td> </tr> <tr> <td>2017</td> <td>1,421</td> <td>14.2</td> </tr> <tr> <td>2018</td> <td>1,621</td> <td>14.1</td> </tr> <tr> <td>2019</td> <td>1,362</td> <td>-16.0</td> </tr> <tr> <td>2020^e</td> <td>1,384</td> <td>1.6</td> </tr> <tr> <td>2021^F</td> <td>1,484</td> <td>7.2</td> </tr> </tbody> </table>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6	1,244	-9.3	2017	1,421	14.2	2018	1,621	14.1	2019	1,362	-16.0	2020 ^e	1,384	1.6	2021 ^F	1,484	7.2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6	1,244	-9.3																						
2017	1,421	14.2																						
2018	1,621	14.1																						
2019	1,362	-16.0																						
2020 ^e	1,384	1.6																						
2021 ^F	1,484	7.2																						
<p>▶ 호조품목 일반기계, 철강제품, 석유제품, 반도체, 가전, 컴퓨터, 석유화학</p> <p>▶ 부진품목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섬유류, 자동차부품</p>																								

가. 2021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소비·투자 회복에 힘입어 7~9% 성장 전망

* 중국 '21년 GDP 전망 : IMF 8.2%, OECD 8.0%, CICC 9.0%, 무디스 7.0%

- (투자) 정부, 국유기업 주도 新SOC*(20년 2~3조 위안 투자 추정)·첨단 제조업(전통 인프라·부동산 투자는 감소) 분야 투자 확대

* 新SOC 7대 분야 : ①5G, ②특고압송전설비, ③고속철, ④전기차 충전, ⑤ 데이터센터, ⑥AI설비, ⑦산업 인터넷망

- (소비) 전면적 경제 정상화 및 다수의 소비 진작책으로 민간소비 3%대 내외 성장 전망
- 단, 2차 팬데믹 우려, 글로벌 디커플링 심화, 미중 분쟁 장기화, 역대 최대 기업부채(약 4,800조원) 등 불확실성 상존

□ (정책) 쌍순환 경제구도 구축*(14차 5개년 계획)에 따른 ①내수부양, ②대외개방으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 발전 추진

* ① 내수부양 : 기술자립, 신형도시화, 新SOC 투자확대, 소비 진작책 지속 추진 등
 ② 대외개방 : 대외경협 강화, 외자유치 지속, 관세인하 및 비관세 장벽 완화 등

나. 2021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첨단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추진 등 신산업분야 확대
 - (3新) 新업종·新산업·新비즈니스모델의 출현
 - * '19년 '3新' 경제부가가치는 16조 1,927억 위안으로 GDP의 16.3% 차지
 - 제조업, 서비스업 등 3차산업 분야에서 첨단 IT 산업(빅데이터·AI·5G·클라우드 등)과 기술융합 확대로 신업종·신산업 출현 가속화
 -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 경제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 中 라이브커머스 거래액(억 위안): '19년 4,513→'20년 11,566→'21년 19,494 (iiMedia Research)
 - (디지털 경제 전환) 5G·산업인터넷·AI 중심으로 전국에 신형 인프라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 경제 육성 정책 가속화
 - * 디지털 플랫폼·클라우드 컴퓨팅·ICT 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협력모델 수요 증대
 - (에너지전환정책 추진) '25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율 20% 도달 목표, 탄소세 도입, ESS(에너지저장장치) 설치, 대량 에너지 규제 등 시행
- (통상환경) 대외협력 확대되나 미국의 對中 견제는 지속될 전망
 - (대외개방 확대) 수입관세 인하*, 외국인 투자 제한 분야 축소** 등 개방형 체제 시행
 - * '21년 1월부터 883개 품목(의약품 및 첨단기술 장비·부품)에 수입 관세 인하 예상
 - ** 2020년판 <외상투자 시장진입 특별관리조치>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금지 목록 수를 40개 → 33개로 축소
 - (美中 무역분쟁) 바이든 행정부, 동맹 중시 외교 통해 對中 봉쇄·압박 기조 유지 전망

※ 오바마 행정부 당시 외교정책 참모 제프리 프레스콧,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단기간에 철폐하지 않고 일부의 산업 분야에만 관세 인하할 가능성이 높음”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일반기계, 철강 (소폭증가) 반도체, 가전, 컴퓨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대폭증가 (10~30%)	○ 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에 공정기계 수요 증가 * '21년 일반기계 수입수요 점진적 회복 전망(중국기계공업연합회) * 기계의 인력대체 확대에 수입수요 증가(카이원과학기술유한공사)
철강 (61)	대폭증가 (10~30%)	○ 14.5 발전규획('21~'25) 첫 해로 내수확대에 따른 가전·자동차 소비확대가 철강 수요를 견인할 전망 ○ 신형 SOC 건설 3년 행동계획('20~'22)에 따르면 21년 고속철, 교통 등에 약 3조 위안 집행 예상
반도체 (831)	소폭증가 (3~10%)	○ 서버 및 스마트폰 시장은 부진하나, PC(수요확대) 및 게임콘솔(신기종 출시) 시장의 선전으로 하반기에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
가전 (82)	소폭증가 (3~10%)	○ 중앙·지방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민간기업의 소비 촉진 행사 등으로 해외 가전제품 수요 증가 전망
컴퓨터 (813)	소폭증가 (3~10%)	○ 전세계 비대면 산업 활성화로 세계 최대 PC 생산국인 중국에서 컴퓨터 관련 부품 수입수요 증가 전망

□ (현상유지) 무선통신기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무선통신기기 (812)	현상 유지 (0~3%)	○ 5G 본격화, DX 전환 가속화에 따라 통신기기 수요증가 하나, 중국산 스마트폰 강세로 한국제품 수출은 제한될 전망

□ (소폭감소) 섬유류, 평판디스플레이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섬유류 (4)	소폭감소 (0~-10%)	○ 수입원가, 물류비 상승으로 로컬기업 조달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기업 진출여건 악화
평판디스플레이 (8361)	소폭감소 (0~-10%)	○ 한국산 TV패널 생산라인 축소로 '22년에 공급 부족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제품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전망(DSCC) * 전세계 패널업체 출하량 중 중국산 비중('20→'21년) : (모니터) 39% → 52%, (노트북) 36% → 39%

 E U	2021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8.6%	2020년	501억(9.8%)
		2021년(F)	544억(10.0%)
<p>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락다운 재개 조치 등 불확실성 속 대규모 경기부양책 및 친환경정책 확대로 對EU 수출 호조 전망</p>			
<p>▶ 호조품목 일반기계,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섬유류, 무선통신기기 등</p> <p>▶ 부진품목 석유제품</p>			

가. 2021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상·하방요인 혼재 속 완만한 속도로 경기 회복 전망
 - (경기)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제성장(4.1%) 기대되나, 락다운 재개 조치 본격화(11월부)로 경기회복 모멘텀은 다소 약화될 전망
 - * '21년 EU GDP, '20년 7월 대비 2% 하락한 4.1% 전망 (EU집행위, '20.11.5)

<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 (%) >

구분	EU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2020(e)	△7.6	△6.0	△9.8	△10.6	△12.8	△3.6
2021(F)	5.0	4.2	6.0	5.2	7.2	4.6

* 자료: IMF('20.10월)

- (소비) 고용시장 회복은 지연*되나, 각 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민간 소비는 완만한 증가 예상('21년 4.2%)
 - * EU 실업률(%) : '20년 7.7 → '21년 8.6 (EU집행위, '20.11.5)
- (정책) 친환경·디지털 분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본격화 예상
 - * EU 집행위, 회복·복원력 기금(RRF) 3,125억 유로의 70%를 '21~'22년에 집행 예정 (그린딜 친환경 분야에 30%, 디지털 분야에 20% 집중 투자)
 - (통화정책) ECB, 최저수준의 정책금리 지속(0.00%) 및 긴급채권 매입(€1.85조 규모) 확대 조치 등을 통해 하방 리스크 완화

나. 2021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친환경 분야 및 디지털화 관련 산업 활성화 전망

- (범유럽 5G 구축) 주파수 할당 경매 및 5G 인프라 구축사업 재개 예상
 - * EU, 범유럽 5G 구축 사업(CEF digital)에 18억 3,200유로 투입(7.21), '22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5G 주파수 할당, '25년까지 5G기반 기기비트 사회 구축 목표
- (언택트 경제 확대) 홈오피스, 홈스쿨링, 온라인 쇼핑, 전자결제 등이 '뉴노멀 디지털 경제'로 안착, 언택트 산업이 유럽 전역에 부상할 전망
 - * (獨) '학교 디지털화' 전략 수립, '24년까지 4만여개 학교에 50억 유로 투자
- (그린딜 전략 추진) 자동차 산업 부양정책 수혜 분야를 '친환경 전기차'로 제한,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 투자 확대 지속
 - * (독일) 신규 등록 전기차 대상 구매보조금 '21년까지 9,000€로 확대 (6.4~)
 - (프랑스) '21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10만개 설치 및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발표(5.26)

<유럽 그린딜 정책>

△기후변화 대응목표 상향조정(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거래제), △에너지 탈탄소화 및 수소경제 확대, △에너지효율성강화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식품안전 등 추진
※ EU 집행위는 6대 핵심정책(디지털화, 유럽통합 등) 중 최우선 정책으로 '유럽 그린딜' 발표

□ (통상환경) 브렉시트 미래관계 합의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 해소

- (브렉시트 불확실성 해소) 영국과 EU가 노딜 브렉시트 우려 해소를 위한 미래관계 협상 합의(12.24)
 - * 상품 교역에서 무관세·무쿼터에 합의했으나, 규제 차별화에 따른 비용 발생 예상

英예산감독청, "EU와 FTA관계를 합의할 경우, 영국 GDP는 향후 15년간 4% 위축될 전망"

- (역내 중심 공급망 재편) 기존 GVC 한계가 부각*되며 각국 정부는 역내 생산망 구축 및 소싱 지역화 전략 강조, 보호무역 조치 우려 확대 예상
 - * 팬데믹 기간 EU-中 공급차질로 발생한 직간접적 피해비용은 연간 GDP 3.5%로 추정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일반기계, 자동차, 반도체 (소폭증가)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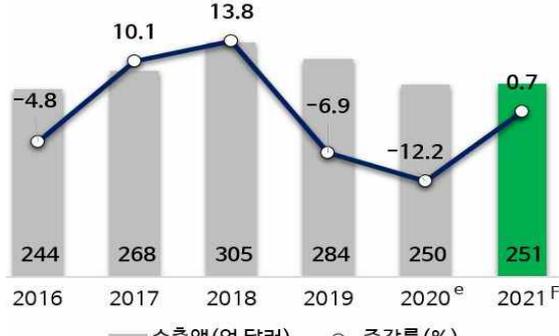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대폭증가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차 관련, 한국 투자 진출기업의 증설투자과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 진출 확대로 설비수요 증가 전망 ○ 신성장 기술투자로 자동화·IT기반의 기계 수요 확대 예상
자동차 (741)	대폭증가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CO₂ 배출규제 강화 및 각국 정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정책으로 한국산 SUV·전기차 판매 호조 전망 * 단, 전기차 패러다임 변화로 현지 제조·생산 확대될 전망
반도체 (831)	대폭증가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홈오피스·화상회의 활성화), D램(신형 스마트폰 출시) 중심의 수요 증가 전망 ○ 전기차·자율주행차 관련 산업용 반도체 신규 수요 기대
석유화학 (21)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산업(자동차·섬유·건설) 생산회복이 기대되며,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와 같은 첨단소재 중심의 수요 증가 전망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설비 투자 본격화로 '22년까지 단말기 수요 확대 예상 * 獨, 화웨이 부품 수급 제한으로 한국제품 반사이익 기대
가전 (82)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코노미 트렌드 지속 확산으로 TV·공기청정기·스타일러 등 수요가 확대되나, 한국기업의 현지 생산으로 직수입 규모는 제한될 전망

□ (현상유지) 철강제품, 평판디스플레이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61)	현상 유지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유럽 중심으로 프로젝트 발주가 기대되나, 환경규제 도입 및 EU 세이프가드에 따라 수입수요가 제약될 전망
평판디스플레이 (8361)	현상 유지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X 가속화, 비대면 트렌드 확대로 TV·모니터 등 수요는 증가하나, 주요 공급처의 상당한 재고보유('21년까지 대응 가능한 수준)가 증가폭을 상쇄시킬 전망

□ (소폭감소)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제품 (133)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기후변화 대응정책(그린딜)에 따른 화석연료 제재 강화 ○ 각국 정부의 락다운 조치 재개로 항공유·디젤유 수요회복 지연

 일 본	2021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0.7%	2020년	250억(4.9%)																					
		2021년(F)	251억(4.6%)																					
<p>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 지연 및 고용시장 불안 지속 등으로 대일 수출은 소폭 반등 전망</p>		 <table border="1"> <caption>수출액(억 달러) 및 증감률(%)</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수출액(억 달러)</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2016</td> <td>244</td> <td>-4.8</td> </tr> <tr> <td>2017</td> <td>268</td> <td>10.1</td> </tr> <tr> <td>2018</td> <td>305</td> <td>13.8</td> </tr> <tr> <td>2019</td> <td>284</td> <td>-6.9</td> </tr> <tr> <td>2020^e</td> <td>250</td> <td>-12.2</td> </tr> <tr> <td>2021^F</td> <td>251</td> <td>0.7</td> </tr> </tbody> </table>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6	244	-4.8	2017	268	10.1	2018	305	13.8	2019	284	-6.9	2020 ^e	250	-12.2	2021 ^F	251	0.7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6	244	-4.8																						
2017	268	10.1																						
2018	305	13.8																						
2019	284	-6.9																						
2020 ^e	250	-12.2																						
2021 ^F	251	0.7																						
<p>▶ 호조품목 선박류, 석유화학</p> <p>▶ 부진품목 자동차, 철강제품, 평판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부품</p>																								

가. 2021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대규모 경기부양책(230조엔)에도 불구하고, 소비 회복 지연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며 1.7% 성장 전망(EIU)

* “일본 GDP가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26년에야 가능할 것” (EIU)

○ (소비) 정부의 가계 소비 보조 정책(정부지원금·바우처)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상승률로 개인소비는 1.9% 증가에 그칠 전망(EIU)

* '20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전년대비 +1엔, 16년만 가장 낮은 상승폭 기록

○ (투자) 기업수익 개선, 비제조업 인프라 투자(원격서비스·재택근무 등) 확대에 따라 점진적 회복세로 전환될 전망

* '20년 설비투자 계획 : (대기업) +1.4%, (중소기업) △16.1%

□ (정책) 코로나19 감염 확대 방지 및 경제활동 회복 지원을 위한 ‘긴급경제대책’* 마련 (108.2조엔 규모)

* (코로나 수습 전) 긴급지원단계 / (수습 후) V자 회복 단계 등 2단계 5대 축으로 구성

1단계) 긴급지원: ①감염확대방지·의료체제개발(2.5조엔), ②고용 및 사업유지(80조엔)

2단계) V자회복: ③주요산업 활성화 등(8.5조엔), ④안정적 공급망 구축(15.7조엔), ⑤향후대비책(1.5조엔)

나. 2021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생활 전반의 디지털 융합 니즈 확대

- (디지털화 확대) 스가 新내각의 ‘디지털청’ 신설(‘21년) 및 스마트 시티 구축 추진 등으로 정부·지자체·기업 연계 프로젝트 확대
 - * (디지털청) IoT·AI 활용, 정보보안 강화, 원격근무 정착, 행정 IT화 등
 - ** (스마트시티) 日 정부, Maas(모빌리티·물류), 데이터활용(환경·에너지), 드론(농업·방재) 관련 실증사업 추진 (‘22년 일본 스마트시티 시장규모 9,964억 엔)
- 제조 및 유통 기업의 AI·IoT·로봇·센서 등을 활용한 DX화(스마트 공장, 스마트 물류) 수요 증가
- (신재생에너지 도입)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 절감(‘13년 대비), 에너지 전환, 탈탄소 목표 수립
 - * 일본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30년 약 1조 521억엔 규모로 성장 전망
- (저출산·고령화) 日 정부, ‘2025년 문제’(베이비붐 세대 모두 75세 이상으로 진입) 대응을 위한 건강·의료시스템(AI·IoT 기술 접목) 구축 투자 확대
 - * 日 의료 ICT시장: (‘18년) 125억 엔 → (‘23년) 198억 엔 전망 (약 1.6배 성장)

□ (통상환경) GVC재편(리쇼어링·니어쇼어링·다변화)에 따른 공급망 변화

- (공급망 재편) GVC 재편 필요성*이 대두되며, 1국 의존도가 높은 분야(자동차부품·의료용품 등)의 생산거점 국내복귀 및 다변화 추진
 - * 중국산 부품·재료 조달에 차질이 생기며 공장 중단, 脫중국 움직임 가속화

① 국내 생산거점 정비 지원사업(2,200억엔)

- 높은 1국 의존도: 자동차부품 등
- 국민 생활 영위: 의료·방역용품, 의약품

② 해외 생산거점 다변화 지원사업(235억엔)

- ASEAN 등으로 제조거점 다변화를 실시하는 기업에 설비도입 등 지원

- (한일 교역 환경 불확실성) 일본의 수출규제(‘19년)를 계기로 한일 관계 악화가 지속, 신규거래처 발굴 기회 축소 전망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등) 선박류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선박류 (746)	대폭등 (30% 초과)	○ NYK사가 한국기업에 발주한 LNG선 등 4척이 '21년에 완공돼 인도될 예정(NYK)

□ (현상유지)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현상 유지 (0~3%)	○ 디지털화, 5G 보급 등으로 IT부문 중심의 성장은 기대되나, 경기 회복 지연 및 기업 실적 악화 등 우려 요인 상존
무선통신기기 (812)	현상 유지 (0~3%)	○ 5G 인프라 설비투자로 한국산 기지국 수요 증가가 기대되나, 로컬기업의 국산화 노력에 따라 수입비중이 축소될 전망
반도체 (831)	현상 유지 (0~3%)	○ 본격적인 DX 추진에 따라 반도체 수요 확대가 예상되나, 日 반도체기업의 판로 단절(화웨이수출제재)로, 대체 판매처로서 일본 내 공급 확대 추진(닛케이신문)

□ (소폭감소) 철강제품, 가전, 자동차부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61)	소폭감소 (0~-10%)	○ 일본 기업의 설비투자가 저조하며, 건설 프로젝트의 지연·취소로 철강업계 부진이 지속될 전망
가전 (82)	소폭감소 (0~-10%)	○ 집콕 소비 확대로 TV 등 제품 수요는 확대되는 추세이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수요침체 우려 확산
자동차부품 (742)	소폭감소 (0~-10%)	○ 주요 기업 생산량은 '20년 상반기 급감 후(△20% 이상) 점차 회복되는 추세였으나, 주요 수출국(유럽 등)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자동차 수요 감소로 한국산 부품 동반 하락 예상

 ASEAN 대양주	2021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8.8%(ASEAN) 7.4%(대양주)	ASEAN 대양주	2020년 853억(16.7%) 2021년(F) 928억(17.0%) 2020년 122억(2.4%) 2021년(F) 131억(2.4%)
<p>아세안 각국의 산업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및 통상협력 확대, 대양주의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동남아 대양주 지역으로의 수출은 증가 전망</p>			
<p>▶ 호조품목 (ASEAN) 일반기계, 반도체, 자동차, 철강제품, 석유화학 등 (대양주) 자동차, 일반기계, 철강제품, 석유제품, 선박류 등</p> <p>▶ 부진품목 (ASEAN) - (대양주) 석유류,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p>			

가. 2021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사상 최악의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 전망

- (ASEAN) 각국 봉쇄정책 완화·해제에 따른 산업활동 재개, 민간 투자 증가 및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아세안 경제 6.1% 성장 전망
 * 단, 역대 최대수준인 공공부채·가계부채 등 불안요인 상존
- (대양주) 코로나19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 및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각각 3.0%, 4.4% 성장 전망

< ASEAN·대양주 GDP 성장률 전망 (%) >

구분	ASEAN						대양주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2019	0.7	7.0	5.0	2.4	4.3	6.0	1.8	2.2
2020(e)	△6.0	1.6	△1.5	△7.1	△6.0	△8.3	△4.2	△6.1
2021(F)	5.0	6.7	6.1	4.0	7.8	7.4	3.0	4.4

* 자료: IMF('20.10월)

□ (정책)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공공지출·일자리 창출 확대

- (ASEAN) 각국의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인도네시아) '21년 정부의 중장기개발계획(RPJMN 2020-2024)에 따라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예정
 - * '21년 인프라 분야에 '20년 대비 47% 증가한 270억 달러 배정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남부경제회랑(SEC) 등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 EEC 신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승인(약 \$26억), 나콘나옥-사라부리 고속도로건설(\$800억), 태국-중국 고속철도 프로젝트 계약 체결(약 \$17억)
 - (필리핀) 주요 인프라 사업인 'Build, Build, Build' 프로젝트* 추진 전망
 - * '21년 정부 예산안에 1조 1,080억 페소(약 \$230억) 배정(GDP의 5.4% 규모)
 - (베트남) 민관협력투자(PPP)법 발효를 통해 자금문제로 지연되었던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성화 될 전망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싱가포르 급행열차(RTS) 프로젝트 최종 협상 완료로 '21년 착공 전망

< ASEAN 통화정책 >

*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여러 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를 통해 대외 리스크 완충 및 금융 유동성 개선 도모

- (대양주) 실업률 완화 정책, 금리 인하 등을 통한 경기침체 해소 및 시장유동성 확대 노력
 - (호주) 현금유동성을 증가시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선목표로 추진
 - (뉴질랜드) 'Labour Manifesto 2020' 발표(중소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 대양주 통화정책 >

* 고용시장 개선, 시장유동성 확대를 위한 금리 인하 단행

- (호주) 국가부채 상승으로 인해 '20년에만 3차례 금리 인하단행('20.11월 0.01%)
- (뉴질랜드) 기준금리 동결 및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적 통화정책 준비

나. 2021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사회전반의 디지털화 추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전자정부* 도입, 핀테크 시장(전자결제 등) 투자 확대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부문 디지털화 추진**
 - * (필리핀)신원정보 시스템 전산화, (베트남)E-Filing·Payment·Customs 시스템 도입 등 (호주) 6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디지털 비즈니스 계획' 발표 ('20.9월)
 -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저탄소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에너지 분야 집중투자 및 대외 협력 강화
 - * (인니) 국가전력계획(RUKN)을 수립, '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23% 확대 계획
 - * (베트남) 풍력·태양광 장비 수입관세 면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 유치
 - * (호주) 국가수소전략 추진을 위해 '수소사업팀' 설립('20.3월), 韓·日 등과 협력 추진
 - * (뉴질랜드) 'NZ Energy Strategy 2050' 발표 ('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제로 목표)
 -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인구 집중(50년 5억명 이상) 및 기반시설 노후화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미래도시 육성정책 추진
 - *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 출범, 10개 회원국 26개 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
 - * (태국) 2035년까지 스마트시티 100개 구축 목표('21년부터 본격 착수 전망)
 - * (베트남) 전국을 연결하는 '스마트시티 발전 전략' 기반으로 민간부문 투자 확대 노력
 -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계획으로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사업 추진 예정
 - (전자상거래 시장) 소비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확대('20년 \$620억→'25년 \$1,720억 전망)
- (통상환경) 양자·다자협정 체결 확대, GVC 재편 가속화
- (통상협력 확대) RCEP 등 FTA발효·체결 기대로 통상 관계 개선
 - *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기대
 - **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타결 ('20.12.18)
 - (차이나 디커플링 본격화) 호주-중국 긴장 고조로, 중국 내 제조·생산 시설의 리쇼어링 및 생산거점 이전(동남아시아) 움직임 다대
 - * 脫중국 가속화에 따라 아세안 중심의 생산 네트워크 형성 촉진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① ASEAN

□ (대폭증가) 일반기계

(소폭증가) 철강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컴퓨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대폭증가 (10~30%)	○ 정부주도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제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기계 수입수요 증가 전망 * (태국)동부·남부경제회랑, (필리핀)'Build,Build,Build' 프로젝트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3~10%)	○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본격 재개에 따라 건축자재 수요 확대되나, 중국산 및 현지 제품의 높은 점유율로 한국 제품은 소폭 증가될 전망
평판디스플레이 (8361)	소폭증가 (3~10%)	○ 시장 경쟁 치열하나, 한국 기업(L사, S사)의 아세안 생산 증가로 수입 수요는 꾸준히 확대될 전망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증가 (3~10%)	○ 한국 기업(L사, S사)의 스마트폰 신규 모델 출시에 힘입어 생산량은 지속될 전망이나, 시장포화 및 소비 심리 위축은 우려 요인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3~10%)	○ 소비심리 위축으로(신차 판매 급감), 중고차 수리 수요 증가에 따른 부품 수입 확대 전망
컴퓨터 (813)	소폭증가 (3~10%)	○ 재택근무·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수요 확대됐으나, 사태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입량으로 수렴할 전망

□ (현상유지) 섬유류, 가전,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섬유류 (4)	현상 유지 (0~3%)	○ 의료용 부직포 등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기대되나, 일반 패션의류 시장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
가전 (82)	현상 유지 (0~3%)	○ 가전제품 등 홈코노미 제품 수요는 증가할 것이나, 소비 위축으로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인 한국산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석유제품 (133)	현상 유지 (0~3%)	○ 국제 유가 회복이 기대되나, 대량재고 발생으로 수입 수요 부진 예상

② 대양주

□ (대폭증가) 자동차 (소폭증가) 일반기계, 철강제품,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741)	대폭증가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여행 재개 기대감으로 신차 구매 수요 확대 전망 ○ 환경 인식 강화로 전기자동차 관심 증대
일반기계 (71,72,75,79)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육성 정책 및 국외 생산시설의 리쇼어링에 따른 기계류 구매·교체 수요 증가 ○ 물류·배송 급증으로 관련 자동화기기 도입 증대 예상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적극적인 인프라·건설 프로젝트 지원으로 수입 수요 확대 전망
석유제품 (133)	소폭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수송·산업 운영 재개로 점진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생산 안정화 등은 상승폭을 제한할 전망

□ (현상유지) 석유화학,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석유화학 (21)	현상 유지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회복 기대되나, 지리적 우위에 있는 싱가포르·말레이시아와의 점유율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 * 호주의 유류·석유화학 수입점유율('19년, %) : (싱가포르) 17.7, (한국) 13.1, (말레이시아) 12.9
가전 (82)	현상 유지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제품은 품질·디자인 측면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나, 코로나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구매량은 감소 추세

□ (소폭감소) 섬유류, 무선통신기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섬유류 (4)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양모, 직물 산업 보호 추세로 현재제품 선호 ○ 가계 소득 위축에 따른 의류구매 감소 추세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보급 확대에 따른 수요는 확대되나, 소비 심리 위축으로 모바일 기기 신규 수요는 감소될 전망

 인도	2021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10.1%	2020년	117억(2.3%)																				
<p>'Make in India' 정책, 수입규제 확대 조치 등은 우려되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 및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으로 對인도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전망</p> <p>▶ 호조품목 철강제품,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가전 등</p> <p>▶ 부진품목 선박류, 섬유류,</p>	2021년(F)	129억(2.4%)																					
	 <table border="1"> <caption>인도 수출액(억 달러) 및 증감률(%)</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수출액(억 달러)</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2016</td> <td>116</td> <td>-3.6</td> </tr> <tr> <td>2017</td> <td>151</td> <td>29.8</td> </tr> <tr> <td>2018</td> <td>156</td> <td>3.7</td> </tr> <tr> <td>2019</td> <td>151</td> <td>-3.3</td> </tr> <tr> <td>2020^e</td> <td>147</td> <td>-22.5</td> </tr> <tr> <td>2021^F</td> <td>129</td> <td>10.1</td> </tr> </tbody> </table>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6	116	-3.6	2017	151	29.8	2018	156	3.7	2019	151	-3.3	2020 ^e	147	-22.5	2021 ^F	129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6	116	-3.6																					
2017	151	29.8																					
2018	156	3.7																					
2019	151	-3.3																					
2020 ^e	147	-22.5																					
2021 ^F	129	10.1																					

가. 2021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제조·서비스업 개선에 힘입어 빠른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인도 '21년 GDP 전망(%) : IMF 8.8, OECD 7.9, World Bank 3.1, Moody's 9.5

○ (소비) 봉쇄조치 해제 이후, 주요 소비재(차량·가전)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소비심리 회복세 완연

* 차량 판매 8월 이후 증가세 기록: (8월) 14.1%, (9월) 26.5%, (10월) 14%

○ (생산) 제조·서비스업이 개선*되며 산업생산 증가 전망

* 10월 제조업 PMI: 58.9(12년만 최고치 기록), 서비스업 PMI: 54.1(8개월만 반등)

○ (투자) 주요 글로벌 기업의 對인도 투자 급증으로 '20.4~8월 FDI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사상 최대실적 달성(\$357억, +13%)

* (아마존): 인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원에 \$10억 투자('20.1)

온라인 금융·디지털대출기업에 각각 \$3.8억, \$1,500만 투자('20.4)

* (페이스북): Jio에 \$57억 투자, Whatsapp과 전자결제시스템 접목한 신규 앱 출시 예정

* (구글): '인도 디지털화 기금'을 신설, \$100억 투자('20.7)

- (정책) 확장적 재정정책 동원, 3,000억 달러(GDP 10% 규모) 경기부양책을 통한 경제회복 기대(소비진작을 위해 \$140억 규모 부양책 추가 발표, 10.12)
 - (인프라 프로젝트) 2024년까지 1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산업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추진 중이며, '20년 주요 인프라 투자 대폭 확대(\$8,050억 추가 투입 결정, '20.2월)
 - * 고속도로 확충(\$450억), 농촌 인프라 강화(\$140억), 인프라 프로젝트 펀드 지원(\$100억), 교통·운송 인프라 구축(\$140억)

나. 2021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회전반의 디지털화 추진
 - (신재생에너지) 환경오염 개선, 낙후된 에너지 인프라, 전기차 육성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개발 확대
 - (ICT) 'Digital India' 정책에 따른 IT산업 활성화 및 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 * '22년까지 도시외곽에 광대역 100% 인터넷 연결, 모바일 타워의 50% 광케이블화, 300만km 광케이블 설치 목표 (인도 통신부)
 - (의료바이오) 인프라 부족 및 건강 관심 증대로, 의료시장 확대 전망
 - * 인도 의료시장 '22년 \$3,700억으로 확대 전망 (IBEF)
- (통상환경) 보호무역주의 기조 심화 및 Make in India 정책 확대
 - (보호무역주의) 한국 포함 주요 수입국 및 FTA 협정국 대상 원산지 검증(관세혜택 물품에 추가서류제출 의무) 등 수입규제 강화 조치 시행
 - * (타이어)정부사전허가(6월), (컬러TV)수입규제 시행(7월), (철강)모니터링 시스템 대상 확대(9월, 580개→810여개), BIS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9월)
 - ** 인도정부의 對한국산 무역구제 신규조사 건수 지속 증가('20.9월 3건 기록)
 - (Make in India) 인도 내 제조·수출 확대를 위한 제조인센티브(PLI) 정책 시행
 - * PLI 대상산업 확대: 배터리제조, 차부품, 네트워크장비, 섬유, 식품가공 등
 - ** '22년까지 전기전자 부품 '완전 수입 대체(No Import Zone)' 달성 목표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철강제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소폭증가) 일반기계, 컴퓨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61)	대폭증가 (10~30%)	○ 자동차·가전 산업이 회복세에 접어들며 철강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현지생산 증가 및 관세·비관세 장벽은 고려 요소
반도체 (831)	대폭증가 (10~30%)	○ 한국 스마트폰 점유율이 높아지며(S전자 26%로 1위 유지) 반도체 수입수요 동반 증가할 전망 * 단, 모바일 특정부품 GST통합간접세 세율 12%→18% 상향
자동차부품 (742)	대폭증가 (10~30%)	○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자동차 수요 증가로 차부품 동반 성장 전망
석유화학 (61)	대폭 증가 (10~30%)	○ 차량 판매 증가(타이어 고무 등) 및 전자제품 제조 증가(폴리스틸렌 등)로 수출 호조 전망
일반기계 (71,72,75,79)	소폭 증가 (3~10%)	○ 봉쇄조치 종료(6월) 이후 도로·건설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로 기계 수요 증가 기대
컴퓨터 (813)	소폭 증가 (3~10%)	○ 원격교육·재택근무로 PC 판매량이 지속 상승 추세 * 게임·온라인교육 발전으로 노트북시장 중심의 성장 예상

- (현상유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 (741)	현상유지 (0~3%)	○ 친환경 전기차 포함 차량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나, 완성차 대상 비관세 장벽 움직임* 확대 추세 * BIS인증(성능테스트 등) 추가 요구 ('20.10.1일부)
무선통신기기 (812)	현상유지 (0~3%)	○ 5G 시범운영으로 수요 확대*될 것이나, 보호무역주의 기조 확대 등 불안요인** 상존 * 중국산 5G 제품 사용제한으로 반사이익 기대 ** 통신·네트워크 수입제품 테스트, 인증 의무화('20.10.1일부)

- (소폭감소) 선박류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선박류 (746)	대폭락 (-30% 미만)	○ 인도는 선박 재활용·수리 산업 활성화로 對韓 수입 수요가 낮으며 '20년 특수로 '21년 수출 급감 예상

 중 동	2021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1.6%	2020년	201억(3.9%)
		2021년(F)	205억(3.8%)
산업 다각화 정책, 대형 이벤트 (두바이 엑스포, 카타르월드컵) 등은 긍정적 요인이나, 코로나 재유행 및 유가 회복 불확실성 등 혼재로 對중동 수출은 소폭 증가 전망			
<p>▶ 호조품목 선박류,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가전,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p> <p>▶ 부진품목 철강제품,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p>			

가. 2021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심각한 경기침체 이후($\Delta 5.0\%$, 40년만 최저치), 코로나 방역 및 경기부양 등 정부대응으로 완만한 회복세(3.2% , IMF)를 보일 전망
 - (유가) 원유 수요 회복(이전 수요의 97%) 및 OPEC+ 감산 축소 합의로 점진적인 유가 상승 전망
 - * '21년 유가는 평균 40~55\$/bbl 내외, 일일수요는 '20년 대비 +5.7% 전망
 - (기업환경) 규제완화* 및 역내 긴장완화에 따른 비즈니스 활성화 기대
 - * (UAE, 카타르) 외국인 지분제한 및 스폰서 제도 폐지 등
 - 단,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및 저유가 기조 장기화 등 불안요인 상존
- (정책) 피해기업 구제,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한 정부지원·인프라정책 확대
 - (재정정책) 세금감면 및 금융지원을 통한 소비활동 촉진 노력
 - * (이란)구제금융(\$43억), (UAE, 카타르)기업세금감면, (이집트)추가예산 편성(\$2.4억) 등
 - (인프라 프로젝트) 환경·ICT·의료·교육·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적극추진
 - * (두바이) \$18억 규모의 개발·클린 에너지 프로젝트 발표('20.10월)

나. 2021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산업다각화 추진에 따른 新성장 산업 투자 확대

- (식량안보) 식량수급 안정화(중동 식량 자급률 10%미만)를 위한 유통 채널 활성화, 스마트팜(IoT기반 농장관리 시스템 등) 도입 등 추진
- (보건의료) 낙후된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한 스마트 보건의료 구축 확대

* (UAE) 가상 의사 및 살균 로봇 도입, 24시간 화상진료 지원 등

* (사우디) 건강보험·병원정보시스템 개선 등 의료시설 디지털화

* (요르단) 최초 100% 디지털화 킹 압둘라 대학병원 설립

- (온라인 상거래 확대) 소비 패턴 변화로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동함에 따라 온라인상거래 및 결제시스템 시장 활성화 전망

* '22년 중동 온라인 상거래 시장은 \$486억 규모로 성장 전망(매년 +19.3% 성장)

- (대형 이벤트 개최) 두바이 엑스포(코로나19로 1년 연기) 및 카타르 월드컵*(22년) 등으로 인프라·기자재·통신·보안분야 수요 확대될 전망

* 월드컵 대비 6만호 호텔 리조트 정비, 8개 월드컵 경기장 준비

□ (통상환경) 對이란 제재 완화 및 평화협정 체결로 중동 내 긴장 완화

- (미국 新행정부 출범)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對이란 제재 완화 전망
 - ABT(Anything But Trump) 전략으로 핵합의(JCPOA) 복귀 및 이란 협상 테이블 유도 등 제재 완화 예상

* 사태 완화 시 거래 불가로 철수한 한국 기업의 진출 회복 기대(현재 모두 철수한 상태)

- (평화협정) UAE-이스라엘의 평화협정 체결(10월)로 투자자유화, 출입국 화물통관 허용, 사우디-카타르 단교사태 호전 등 갈등 완화 기대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선박류 (소폭증가) 무선통신기기, 가전, 자동차부품, 컴퓨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선박류 (746)	대폭증가 (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웨이트 국영선사 KOTC와 2억 달러 규모 LNG선 수주('19.10월)로 '21년부터 순차적 납기 전망 ○ 국영 석유사 ADNOC의 장기 선대확충 계획(UAE 비전 2030)으로, 상반기 9억 달러 규모 발주 예정에 따른 우리기업 기대 상승 * 초대형 원유운반선 6척 및 중대형 원유운반선 9척
무선통신기기 (812)	소폭 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기술을 접목한 모바일기기 관심 증대(한국기업 S사 신규 프리미엄 라인 등) ○ 5G 서비스 확대에 따른 전용 단말기 수요 증가
가전 (82)	소폭 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활동 제한으로 OTT서비스·게임 산업 활성화에 따른 가전제품 수요 증가 전망
자동차부품 (742)	소폭 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차수요 급감, 외국인 대거 이탈에 따른 중고차 물량 증가로 차부품 수요 증가 예상
컴퓨터 (813)	소폭 증가 (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시리스 결제 장려로 단말기 교체 수요 증가 및 주요시설(병원·공항·학교) 스마트 시스템 도입 확대

□ (소폭감소) 철강제품, 평판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61)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제품·서비스 우대정책 등 현지화 요건 강화 ○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가 수출여건 결정할 전망
평판디스플레이 (133)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중동 최대 수출시장인 이집트 당국의 소비재 수입 억제 정책으로 수입수요 감소 전망 * 수출입청(GOEIC), 수출품 제조공장 등록제 의무화 도입
석유화학 (21)	소폭감소 (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의 아람코, 국영석유화학회사가 현지생산을 위한 석유화학단지 개발을 추진해 장기적인 수출부진으로 이어질 전망 ○ 주요국의 자국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수입규제 강화 * (터키) 화학제품 등록 및 승인제(REACH KKDİK) 시행

 중남미	2021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6.9%	2020년	181억(3.5%)
		2021년(F)	194억(3.6%)
USMCA발효, 재정지출 확대로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 산업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對중남미 수출은 증가 전망			
<p>▶ 호조품목 일반기계, 석유화학, 섬유류,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p> <p>▶ 부진품목 평판디스플레이</p>			

가. 2021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경제성장률은 소폭 반등(21년 3.6%, IMF)하나, 원자재 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경제성장률 회복은 '23년, 1인당 실질소득 회복은 '25년에 가능(IMF, '20.10)

○ (소비) 각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금리인하 지속, 코로나19 사태 관련 규제 완화 등으로 소비심리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

○ (투자) USMCA 발효 등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확대될 전망

□ (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취약계층 소득지원·기업지원·세금감면 등) 및 통화정책(기준금리 인하) 등을 통한 경기활성화 확대 노력

* 다만, 예산전용·국채발행·추경편성 가동으로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증가 우려

** 중남미 대다수 국가는 평균 GDP의 8%를 할애하여 재정 지원 추진중(IMF)

* (멕시코) \$138억 규모의 39개 민관합동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 발표

* (브라질) 2,640억 헤알 규모의 투자유치 전망(고속도로, 철도, 에너지 등)

* (페루) 중소기업 재정적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예산 배정 확대 등

나. 2021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비대면 산업 인프라 활성화

- (보건의료) 의료시설·서비스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 등 의료 시스템 비대면화 분야 투자 확대
 - * 중남미 코로나 검사·예방을 위한 자원 조달(범미보건기구(PAHO), IDB 등) 기대
- (디지털화 추진) 낮은 인터넷 보급률*, 열악한 통신환경 등 개선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 * '19년 중남미 인터넷 보급률은 전체의 66.7%에 불과 (소득 최하위층은 38%)

* (콜롬비아) 정부주도 디지털 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적극 추진
 -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재택근무, △전자정부, △사이버보안, △원격의료, △전자상거래 등 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

* (칠레) '22년까지 국가 디지털화 계획 추진으로 5G사이버보안 등 시장 분야 확대

-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 언택트 소비 확산에 따른 중남미 온라인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가 지속될 전망
 - * 코로나19 이전 대비 멕시코 전자상거래 소비는 3배 이상, 브라질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기업은 2배 이상 증가

□ (통상환경) 글로벌 보호주의 속 FTA 확대로 경기 회복 추진

- (FTA 확대) 콜롬비아-이스라엘 FTA 발효(8.11), 멕시코-EU FTA 개선 협상 등 대외 교역여건 개선 움직임 확대
- (한-중남미 FTA) 한-중미 FTA 발효 기대, 한-메르코수르(MERCOSUR) 무역협정(TA),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추진 등 한국의 중남미 시장개방 노력 지속
- (USMCA) 북미 시장의 수출 전진 기지 역할 강화
 - * 승용차, SUV의 역내 가치 비중을 62.5% → 75%로 강화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일반기계, 석유화학

(소폭증가) 철강제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컴퓨터, 섬유류,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대폭증가 (10~30%)	○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다수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로 기계장비 수요가 증가할 전망
석유화학 (21)	대폭증가 (10~30%)	○ 멕시코 정부는 에너지분야 성장동력으로 화학산업 활성화를 강조, 원자재 수입 인프라 구축 추진 ○ 위생용 장갑·포장용기 등 관심 증대
철강제품 (61)	소폭증가 (3~10%)	○ 주요국 건설·인프라 프로젝트로 철강수요 반등 기대 * (콜롬비아) '21년 신규 주택 판매 7.5% 증가 전망
반도체 (831)	소폭증가 (3~10%)	○ 비대면 산업 강화로 서버용·PC메모리 등 수요 확대 전망 ○ 전기전자산업 회복으로 반도체 수요 증가 전망(Abinee)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3~10%)	○ 멕시코는 USMCA 원산지규정 강화로 역외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나, 일부 자동차부품 기업은 직접진출 가능성을 보임 ○ '21년 자동차 생산·판매 11% 증가 전망(브라질 Anfavea)
컴퓨터 (813)	소폭증가 (3~10%)	○ 원격학습 및 재택근무 증가로 PC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고환율로 인한 부품 가격 상승으로 신규 출시 제품의 가격상승이 예상됨(IDC)
섬유류 (4)	소폭증가 (3~10%)	○ '21년 브라질 의류수입은 5.2% 상승 전망(섬유협회 Abit) ○ 코로나 장기화 시, 방역제품(마스크·방수복) 등 특수 섬유류 중심의 수요 증가 전망
석유제품 (133)	소폭증가 (3~10%)	○ '21년 브라질 석유제품 소비수요 증가 전망(국제에너지기구) *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시설 부족으로 수입수요 지속 ○ 경기회복 시 조업재개로 연료 소비 증가 전망

□ (현상유지) 무선통신기기, 가전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무선통신기기 (812)	현상유지 (0~3%)	○ 멕시코 5G·광섬유망 구축 프로젝트에 따른 수요 기대 ○ 단, 고환율에 따른 무선통신기기 가격상승은 우려요인
가전 (82)	현상유지 (0~3%)	○ 야외활동 제한으로 가전제품 수요 증가하나, 주요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저하 등 불안요인 상존

 CIS	2021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5.0%	2020년	110억(2.2%)																					
		2021년(F)	116억(2.1%)																					
서방의 對러 추가 제재 우려, CIS 정세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재개 및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對AS 수출은 증가 전망		 <table border="1" style="display: none;"> <caption>CIS 수출액(억 달러) 및 증감률(%)</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수출액(억 달러)</th> <th>증감률(%)</th> </tr> </thead> <tbody> <tr> <td>2016</td> <td>69</td> <td>-2.8</td> </tr> <tr> <td>2017</td> <td>92</td> <td>33.7</td> </tr> <tr> <td>2018</td> <td>108</td> <td>17.5</td> </tr> <tr> <td>2019</td> <td>135</td> <td>24.8</td> </tr> <tr> <td>2020^e</td> <td>110</td> <td>-18.6</td> </tr> <tr> <td>2021^F</td> <td>116</td> <td>5.0</td> </tr> </tbody> </table>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6	69	-2.8	2017	92	33.7	2018	108	17.5	2019	135	24.8	2020 ^e	110	-18.6	2021 ^F	116	5.0
연도	수출액(억 달러)	증감률(%)																						
2016	69	-2.8																						
2017	92	33.7																						
2018	108	17.5																						
2019	135	24.8																						
2020 ^e	110	-18.6																						
2021 ^F	116	5.0																						
▶ 호조품목 선박류,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가전, 컴퓨터 ▶ 부진품목 석유류																								

가. 2021년 시장여건

□ (경제성장) '21년 CIS는 7.9% 경제성장이 예상되나(IMF),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전면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20년 Δ11.9%)

* '21년 CIS 경제성장률 전망(%): (IMF) 7.9%, (World Bank) 2.8%, (EBRD) 2.9%

○ (소비)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 및 프로젝트 재개로 점진적인 소비심리 회복

* 러시아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 전망(%): ('20년)Δ3.0 → ('21년)3.0 (러 연방 경제개발부)

○ (투자) OPEC+ 감산 합의 추진에 따른 원자재 가격 회복으로 루블화 안정이 기대되며 투자환경이 개선될 전망

□ (정책) 러시아, 의료방역·지방지원 등에 종합 위기대응책 추진(\$400억 규모)

< 러시아 경기부양책 >

* (기업 지원·세제 혜택) 약\$66억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저금리 재융자 지원

* (가계 소득 지원) 만 3세미만 자녀 당 5천루블씩 3개월간 지급 등

○ 이 외 CIS국가 또한 세금납부 및 대출상환 기간 유예 등 지원 조치 시행

* 카자흐스탄, 중소기업소상공인 재융자 지원(\$66억), 식료품 배급 등 추진

나. 2021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첨단산업 육성 및 주요산업의 수입대체화 추진

- (의료·바이오 투자확대) 헬스케어 발전(원격 의료 서비스 등)을 위한 보건예산 확대 및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 * 러시아 ‘의료2030’ 전략 추진(의료분야 제조 현지화 규제 등 비관세 장벽 강화 예정)
- (디지털 경제 발전) 러시아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보건, 교육, 농업, 산업, 건설 등)의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을 추진
 - * 디지털 은행 발전(홍채·안면인식 활용 비접촉 스마트뱅킹 등 신기술 도입)
 - ** 러시아 스마트 농업 시장전망: '19년 \$6.4억 → '27년 \$15.8억 전망
- (러시아 북극해 개발 프로젝트) '21년 프로젝트 추진 재개 기대로 항만인프라 개발 및 선박 등 분야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
 - * 한국기업 H사, 현지합작 진출 및 Arctic LNG-2 프로젝트 LNG선 설계로 러시아와 협업 중

□ (통상환경) 단일시장 형성(EAEU), 정세불안 등 요인 혼재

- (EAEU 협력 강화) 출범 6년, 중장기 발전 공통과제 수립 및 단일 시장 형성* 등 지역 내 협력 지속 확대 전망
 - * 단일 관세 지역, 단일 교통 시스템, 단일 금융시장, 정부 민원 공유 체계 등을 목표
- (서방 경제제재)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 암살 시도 관련 서방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 우려
- (CIS 정세불안) 벨라루스 대선 불복 대규모 시위,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영토분쟁, 키르기스스탄 부정선거 등 정세 불안 격화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자동차부품, 선박류 (소폭증가) 가전, 컴퓨터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자동차부품 (742)	대폭증가 (10~30%)	○ 한국기업 중 H사·K사는 러시아 진출이 가장 활발한 기업으로, 브랜드 이미지 상승에 따라 SKD, CKD 부품 수요 증가 전망
선박류 (61)	대폭증가 (10~30%)	○ 코로나19 및 서방경제제재로 북극해 개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으나, '21년 경기회복시 활발히 추진될 전망 * H사, 현지 합작 진출과 Arctic LNG-2 프로젝트 관련 LNG선 설계로 러시아와 협업 중
가전 (82)	소폭증가 (3~10%)	○ S사·L사 브랜드 인기에 힘입어 AI, IoT 등 첨단기능이 접목된 제품 중심으로 수요 증가 전망 ○ 권역 내 생산 확대(터키, 우즈베키스탄)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철강제품 (82)	소폭증가 (3~10%)	○ 러시아 건설 프로젝트 재개 및 지속적인 산업 자본 투자에 힘입어 철강 수요 회복 전망 * 카자흐스탄 정부주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누르릴 줄 등) 진행중
컴퓨터 (813)	소폭증가 (3~10%)	○ 홈오피스·원격수업으로 PC, 노트북 수요 지속 증가 * 카자흐 국가경제 디지털화(디지털 카자흐스탄) 추진중('18년~)

□ (현상유지) 일반기계,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현상유지 (0~3%)	○ 러시아 정부의 의료복지 확대로 의료정밀기계 수요가 높으며 한국제품 인지도가 높음(경제개발부) ○ 반면, 카자흐스탄과의 해양플랜트 모듈납품 프로젝트 종료로 수요 급감* 전망 * '20년 상반기까지 對카자흐스탄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
무선통신기기 (812)	현상유지 (0~3%)	○ 5G통신 인프라 구축(러시아) 및 비현금결제 등 언택트 생활방식 확산으로 시장 성장 기대 ○ 소비침체 장기화 및 중국산과의 경쟁심화 등 불안요인 상존
석유제품 (133)	현상유지 (0~3%)	○ 러시아 현지생산 제품 경쟁력이 높아지나, 주요국의 운송 재개로 디젤·항공유 등 수요 증가 전망

 아프리카	2021 수출증가율(F)	수출액(비중)	
	7.5%	2020년	60억(1.2%)
		2021년(F)	65억(1.2%)
신성장산업 (그린뉴딜·디지털전환), 공공조달 확대, AfCFTA 본격 시행 으로 對아프리카로의 수출은 확대될 전망			
▶ 호조품목 일반기계,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화학, 평판디스플레이 등 ▶ 부진품목 철강제품, 석유류			

가. 2021년 시장여건

□ '21년 아프리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20년 $\Delta 3.0\%$)을 벗어나 3%대로 회복할 전망(IMF)

* \$370~\$390억 생산 손실 발생, 정부부채 확대, 환율 악화 등 초래 예상

○ 단, 재정 회복 역량이 타 선진국 및 신흥국 대비 부족, 공공부채 비율이 확대될 전망

* '20년 SSA(Sub-Saharan Africa) GDP대비 공공부채 비율 63.1% 기록 전망(World Bank)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GDP 성장률 추이(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e)	2021(F)
성장률	3.1	1.4	3.0	3.2	3.2	$\Delta 3.0$	3.1

* 자료: IMF('20.10월)

□ (정책) 주요국 정부는 경제회생전략 마련, 경제침체 대응 지속

* (남아공) 향후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 3%를 위한 경제회생전략 발표

* (케냐) 금리·조세 완화를 통한 중소기업 구제 경기부양책 추진

* (코트디부아르) 경제·사회 지원금 \$30억 투입 발표('20.5월)

나. 2021년 수출환경

□ (산업환경) 보건산업·디지털전환·친환경정책 등 신성장동력 발굴

- (그린뉴딜형 성장)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기후변화 대응책 강조*,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

* 기후 자금조달을 2배 늘려 '25년까지 250억 달러 배정

< AfDB의 '아프리카 에너지 뉴딜 정책' >

△에너지 변혁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에너지 부문 자금 조달을 위한 국내외 자본 동원, △정부의 에너지 정책, 규제, 거버넌스 강화 지원, △파이낸싱 투자 등

- (온라인 플랫폼 거래) 온라인 거래가 새로운 소비 패턴으로 부상, 아프리카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21% 성장(세계평균은 12%)
 - * 阿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17~'30년 연평균 4%씩 빠르게 증가
- (공공조달 확대) 온라인 교육 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성 변화로 의료·농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 공공조달 증가 전망
 - * 남아공 라마포사 대통령, 국제기구와 협력한 '역내통합 의료용품 마켓플레이스' 론칭 선언('20.6월)
- (디지털 전환) 원격근무, 온라인 수업 등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일상화로 5G 서비스 상용화 가속

□ (통상환경) '21년으로 연기된 AfCFTA(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 본격 시행 예정

- (AfCFTA 출범) GVC 재편 움직임 관련하여 AfCFTA 역할에 대한 기대감* 상승(코로나19로 협상 중단되었으나 '21년 본격 시행 예정)

* 성공적 이행 시 15%에 불과한 역내 교역량 '22년까지 52% 증가 전망(UNECA)

** GVC 재편 필요성 부각되며 AfCFTA를 통한 지역가치사슬(RVC) 구축 가속화 전망

→ **식량 안보 산업인 농산품·식료품·석유·화학제품에서 효과 두드러질 전망**

다. 주요 품목별 수출전망

□ (대폭증가) 일반기계, 컴퓨터 (소폭증가) 가전, 자동차부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일반기계 (71,72,75,79)	대폭증가 (10~30%)	○ 남아공, 에티오피아 등에서 정부 주도 대형 인프라 구축, 건설 산업 증가, 제조업 육성 노력 지속으로 對아프리카 기계류 수출은 예년 수준으로 반등할 전망
컴퓨터 (813)	대폭증가 (10~30%)	○ 비대면 산업 및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재택근무, 화상 회의, 온라인교육 등이 일상화됨에 따라, 컴퓨터 장비·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가전 (82)	소폭증가 (3~10%)	○ 중산층 성장, 여성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가전 수요는 꾸준하나, 현지 생산 증가 및 중국산과의 경쟁 심화는 불안요인
자동차부품 (742)	소폭증가 (3~10%)	○ 아프리카 최대 수입국인 남아공 내 차량 생산 재가동 ○ 자동차 제조업은 조립중심 형태로 이루어지며, 자동차 부품은 수입에 의존

□ (현상유지)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무선통신기기 (812)	현상유지 (0~3%)	○ 모바일 이용자 증가 추세로 수요 확대되나, 한국산은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제품이 인기
자동차 (741)	현상유지 (0~3%)	○ 중산층 증가, 신차 수입 장려를 위한 특별소비세가 인하(에티오피아)되나, 각국 정부는 자동차 현지 생산확대를 독려

□ (소폭감소) 철강제품

품 목 (MTI코드)	전 망	수 출 증 감 요 인
철강제품 (61)	소폭감소 (0~-10%)	○ 주요 교역국인 남아공의 수입규제 강화 조치(세이프가드 연장 및 신규도입 등)

작 성 자

- 북미지역본부 성기주
- 중국지역본부 오정훈
- 유럽지역본부 서희현
- 일본지역본부 김민정
- 동남아대양주지역본부 안중익
- 서남아지역본부 김한나
- 중동지역본부 김연건
- 중남미지역본부 공소연
- CIS지역본부 홍승아
- 아프리카지역본부 이종민
- 무역분석팀 송민주

Global Trade Report 20-001

2021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0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무역분석팀
(02-3460-7596)
I S B N | 979-11-6490-611-6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